

“업무 누락 없이 마무리해야”

무주군, 12월 월례조회

3일 무주군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는 지난 3일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월례조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다면 좋겠다”며 “업무도 누락되는 것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폭설대비와 함께 상수도 및 농업시설물 관리 등 겨울철 기상상황에 맞는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예방과 △이웃돕기,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내년도 원활한 군정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확보부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회 예산안 설명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줄 것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내용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찬을 통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덧붙였다. 한편, 2018년 정부혁신 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박효진 주무관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대상을 받았으며 농업정책과 윤수진 팀장이 ‘공공비축 미곡매입 도우미 지원’으로, 문화관광과 김다연 주무관은 ‘행정구역은 달라도 이웃사촌·산골주민 찾아가는 행복버스’로 금상을 받았다.

은상은 ‘노블리스 오블리 무주운동 활성화’를 제안한 사회복지과 박선영 주무관, ‘장애인 전통보장구 고숙충진기 설치사업’을 제안한 사회복지과 이수민 주무관,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보건의료사업 홍보’를 제안한 보건행정과 유성현 팀장이 수상했다. 동상은 보건행정과 이경효 주무관(식품배달영업수 연계 금연환경 조성 홍보), 산업경제과 배지연 주무관(사회·경제공동체 육성사업), 농업정책과 김재원 팀장(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보건행정과 최승미 주무관(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시설사업소 손수양 주무관(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시스템 운영)이 수상했다.

무주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 정부혁신 실행계획 추진성과 보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총 11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수상작들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표사례로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9 신규시책 발굴 우수자 포상에서는 ‘무주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제안한 기획실 이희수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환경위생과 김경진 주무관(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플라즈마 설비 설치)이 우수상, 안전재난과 김종일 주무관(전간도로 자주식 주차타워 조성)이 장려상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내년 전북도 최우수축제 선정

장수, 인센티브 8000만원 확보

장수군 대표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2019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장수군은 3일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지역축제육성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심사’에서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돼 도비 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시군 대표 축제 심사는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문화관광정책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축제 콘텐츠의 차별성, 축제장 시설 인프라 운영의 우수성, 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 활동의 적극성, 효과 및 성과 등 5개 분야의 평가로 실시됐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지역 대표 Red Color 농·특산물인 사과와 한우·오미자·토마



장수군 대표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2019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토 등을 테마로 한 체험형 축제로, 즐길 거리와 먹거리, 볼거리, 설 거리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축제 콘텐츠 완성도와 방문객 32만명, 현장매출액 30억원의 성과를 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정길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명품 농·특산물과 전문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속의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김종록 작가 초청 특강

진안군은 3일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김종록 작가 초청 특강을 군청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금척지향이라는 자부심’을 주제로 우리 시대의 금척에 대

해 국가리더십, 바른 생명 등 금척 정신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록 작가는 최근 진안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금척’을 출간했으며, 마이산을 찾은 태조 이성계가 꿈속에서 금척을 받았다는 전설을 근대사의 일

대 사건과 연계해 흥미로운 스토리로 엮었다.

이날 김 작가는 “진안과 많은 연관이 있는 금척을 문화 스토리텔링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며 모든 사람이 금척 정신을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3일 무주군과수영농조합법인 이기출 대표와 무주읍 방망이 난타팀에서 각각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씩을 무주군에 기탁했다.

‘나눔으로 따뜻한 무주’

과수영농조합법인 이기출 대표·방망이 난타팀 성금기탁

3일 무주군과수영농조합법인 이기출 대표와 무주읍 방망이 난타팀(단장 김도은)에서 각각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씩을 무주군에 기탁했다.

이기출 대표가 전달한 성금은 무주군과수영농조합법인이 농촌진흥청 공모에서 “2018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로 선정(농촌진흥청 장상 수상)되며 받은 시상금이어서 기탁의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과수영농조합법인(회원 302명)은 아리수와 썸머킹 등 우리품종 전문 생산단지로 사과 병해충 예방·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온라인 쇼핑몰 판매와 블로그 채널단 운영, 바이럴마케팅 등을 진행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기출 대표는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단지라는 인정과 함께 얻은 결실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돼 기쁘다”며 “이웃들을 생각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잘 전달되길 바라고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받는 반딧불사과 생산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읍 방망이 난타팀이 무주읍을 통해 전달한 성금은 회원들이 함께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주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무주 덕유산(하남방향)휴게소에서 공연을 하고 얻은 수익금 전액으로 알려졌다.

무주읍 방망이 난타팀은 무주군 관내에서 난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9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올 9월 반딧불축제에서 활동을 시작해 크고 작은 지역행사 와 주민들을 위해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김도은 단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덕유산휴게소에서 장소 등 도움도 많이 주셨고 무엇보다 휴게소에 들르셨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윤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

진안군은 주천 윤일암반일암 계곡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한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최근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반영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0억(국비 12억, 군비 18억)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캠핑장에는 자동차야영장 93면, 취사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올해 1차분으로 10억, 내년도에 2차분 20억을 집행할 계획이다.

2020년 캠핑장 운영을 목표로 올해는 자동차야영장 총 계획면적 93면 중 28면을 윤일암반일암 제1 주차장에 조성하고, 2차분은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군은 윤일암반일암 계곡의 특성상 관광객 방문이 여름에 편중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으로 사계절 캠핑객들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연중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공민이나 계곡 등지에 텐트를 치거나 캠핑카를 설치하고 캠핑 여가를 즐기는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으로 이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캠핑장을 만들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적상면 초리농쿨마을

1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선정

무주군 적상면 초리농쿨마을이 전라권에서는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하는 12월 추천 여행지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됐다.

12월 추천 여행지 농촌체험마을은 계절·테마 별 농촌여행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두 기관이 매월 계절과 주제 등에 적합한 농촌여행코스 또는 농촌여행지를 선정·발표하는 곳으로, 무주군 적상면 초리농쿨마을은 ‘초리 팥밭놀이 축제’로 주목을 받았다. 초리농쿨마을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연말리기를 비롯한 지게 뭍놀이와 팥이치기, 줄타기, 송어 및 빙어낚시 등을 할 수 있으며 팥물을 이용해 커피를 내려먹는 색다른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초리농쿨마을이 이경환 이장은 “초리에 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재미와 느낄 수 있는 정을 담아 준비하고 있다”며 “소박하지만 다시는 없을 감동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군 적상면 초리농쿨마을 여행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 웰츠’과 무주군 ‘마을을 잇는 사람들’, 무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내년 재해예방 144억5000만원 투입

진안군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내년도에 144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개지구(우화1지구, 대량3지구)에 33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개지구(원가마지구, 소태정지구)에 60억6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5개지구(관지천의 4개소)에 50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해예방사업은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등의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을 내년 우기 이전에 주요공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진안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동계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삿포로 국제대회 질기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휘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휘트 영국지리 요원 지역총 휘트 레프팅 가이드 지역 휘트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역총 휘트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